

‘식물국회’ 이어갈까 ‘대치정국’ 풀어낼까

■ ‘추석민심’ 들은 여야, 이번주 초 정국 정상화 분수령

새누리, 야당과 협상 본격화 국회 복귀 압박

민주, 오늘 의총...장외투쟁 강화 강경론 득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 더욱 격해진 여야 대치가 이번 주 초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민심을 들은 여야가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려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금주 초 민주당과 협상을 본격화해 국회 복귀를 압박할 태세이고, 민주당도 23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최대 관심거리다.

22일 현재 민주당은 3자회담 결렬 후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흐름이어서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야당에게 정부여당을 도마 위에 올려 뺨공을 퍼부어 수 있는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겠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감 보이콧’은 아니더라도 매년 9~10월 진행되던 국감이 올해는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기국회가 늦어지면 새해 예산안 심사도 늦어지면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지역 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뉴스

일단 새누리당은 내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결산·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을 민주당과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각 일정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석 민심을 보니까 정말 국정원 문제로 그만 싸우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라는 질책이 한결같았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정치투쟁을 접고 정책경쟁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은 “민주

당도 추석 민심을 들었으면 당연히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면서 “조속히 국회에 들어와 실질적인 민생을 살리고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추석 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갈 바에 대해서 연휴 기간에 천막을 찾아주신

여러 의원과 많은 말씀을 나눴다. 대체로 원내의 병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일치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확인된 이상 원내·원의 투쟁 양쪽을 다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의 당내 다수여론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추석연휴 정국 구상

민생 철저히 챙기고 非민생은 ‘거리두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맞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세 일즈 외교 후속 조치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등 민생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 후속조치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과 10월 초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반기 최대 역점 사안으로 내세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구상을 위해 각종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추석 구상은 우선 러시아·베트남 순방에서 벌인 세일즈 외교 결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내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와 브루나이에서 연달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역대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를 위한 전략을 짜는데 몰두했다

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과 가진 여야 3자 회담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던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 등 쟁점에 대해서는 당분간 박 대통령이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를 통해 교착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만을 내세우다 보니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는 지난 20일 현재 60.9%를 기록해 취임 후 최고치였던 11일(69.5%)에 비해 8.6%포인트 떨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고소득자 세 부담 선진국보다 약해”

“최고세율 적용구간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 초과)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달하는 등 고소득자 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면 연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2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3680달러의 11.68배에 달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의 2.17배에서, 캐나다는 2.38배에

3000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 측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할 경우, 근로소득자 2만8000명(0.3%), 종합소득자 4만6000명(1.6%)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이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3500억원(기재부 추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세수부족액도 최소한 10조원 이상 되는 재정위기가 심각하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1인당 국민소득의 5.86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대통령, 공작정치 유혹 벗어나야”

박대통령에 공개 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박 대통령은 공작정치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국정원에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가 없다는 취지’의 지난 6월 박 의원 발언이 국가정보원의 NLL대화록 공개의 발단이 됐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공개를 어찌서 저와 연결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근거로 야당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것은 공작정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에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인사와 새누리당 측이 집중적으로 통화한 것이 밝혀지는 등 이 시나리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역 유세에서 대화록을 읽은 사실은 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증거”라며 “대통령은 알고당도많은 공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자 회담 결과에 국민이 실망했다. 대통령이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 ‘여성다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여기서 여성다움이란 분명 ‘포용’의 의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이희호 여사 방문

호남민심 끌어안기 나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7일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고동자택을 예방, 부인 이희호 여사와 30여 분 남짓 대화를 나눴다.

안 의원은 먼저 “건강해 보이셔서 좋다”면서 “(오즘) 많은 분들을 찾아 뵙고 있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이 여사는 “정치를 하시려면 그래야 한다. 잘하고 계시다”면서 “신당 이야기도 나오더라”며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관심을 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전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을 놓고 “빠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안 의원은 “어제 3자회담도 그렇고 청와대가 너무 격정이다”며 “(박 대통령)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분관 1층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별관 2층	한정식 분양중
분관 2층	브랜드피자 분양중	별관 3층	별관 3층
별관 1층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별관 4층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지하 1층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